

성격병리를 구성하는 하위 특질*

황 순 택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성격장애 진단의 기술 타당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성격병리의 기술 위계상 하위 특질들의 체계적인 확인과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병리에 기저하는 하위 특질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황순택(1995)의 연구에서 제작된 자기보고형 성격장애 평정척도의 문항들을 카드로 제작하여 138명의 대학생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사한 내용들"을 함께 묶게 하였다. 이 자료로 결합확률 행렬표를 만들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0개의 성분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성분, 즉, 성격병리 하위 특질들을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성격병리 하위특질들과 비교하고, 연구의 방법, 의의,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편람 3판(DSM-III;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에서 성격장애를 독립된 축으로 설정하고 각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진단준거를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성격장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급증하였다. 성격장애를 별도의 축으로 독립시키고 구체적인 진단준거를 제시한 것은 진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Frances, 1980). 그러나 축 1 주요임상 증후군에 비해 축 2 성격장애의 진단 신뢰도는 기대한 만큼 향상되지 못하

였다. 예컨대,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경험적인 연구에서 성격장애 진단의 진단가간 일치도가 낮고, 한 개인이 여러 개의 성격장애에 중복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Angus & Marziali, 1988; Gartner, Marcus, Halmi, & Loranger, 1989; Kass, Skodol, Charles, Spitzer, & William, 1985; Oldham, Skodol, Kellman, Hyler, Rosnick, & Davies, 1992).

진단가간 일치도가 낮고 한 개인이 여러 개의 진

* 이 연구는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신진교수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단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 개인에게 내려진 진단을 신뢰하기가 어렵게 되고, 치료 방침을 정하는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장애의 원인과 경과, 치료에 관한 연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진단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현상은 근원적으로 DSM 성격장애 진단체계에서 진단들간의 구분과 경계가 모호하고, 진단들 간에 증거의 겹침이 많고, 개개 증거들 간에 개념적인 구분이 불분명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Frances, 1980; Loranger, Susman, Oldham, & Russakoff, 1987; Stangl, Pfohl, Zimmerman, Bowers, & Corenthal, 1985; Widiger, Frances, Pincus, Davis, & First, 1991).

이러한 문제점들은 크게 진단체계와 관련지어 검토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진단 내용의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황순택, 1995). 진단체계 상의 문제는 '장애'를 보는 관점과 진단분류의 모델에 관한 것으로, '성격장애'를 정상성격과 질적으로 다른 독립적인 실체(entity)로 볼 것이냐 연속선(continuum)을 이루는 정상성격의 부정용적 극단으로 볼 것이냐의 논란이 여기에 속한다(Cantor, Smith, French, & Mezrich, 1980; Eysenck, Wakefield, & Friedman, 1983; Frances, 1982; Gunderson, 1992; Horowitz, Wright, Lowenstein, & Parad, 1981; Kass, Skodol, Charles, Spitzew, & Williams, 1985; Widiger & Frances, 1985).

성격장애의 내용에 관한 검토는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중 하나는 특정한 개별 성격장애의 정신병리적인 속성과 임상양상, 예후, 치료반응, 다른 장애와의 관계, 진단의 임상적인 유용성 등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까지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온 진단은 경계선 성격장애이다(예컨대, Angus, & Marziali, 1988; Blais, Hilsenroth, & Castlebury, 1997; Chapin, Wightman, Lycaki, Josef, & Rosenbaum, 1987; Fyer, Frances, Sullivan, Hurt, & Clarkin, 1988; Links, Heslegrave, & vanReekun, 1998; Links, Mitton, & Steiner, 1993; Meijer, Goedhart, & Treffers, 1998; Shapiro, 1989; Trull, Useda, Conforti, & Doan, 1997).

성격장애 진단의 내용에 관한 또하나의 연구분야는

개개 성격장애를 어떤 내용으로 정의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이다. DSM에서 개개 성격장애를 특징짓는 내용은 해당 장애의 진단준거로 제시되어 있다. 전형성 분류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 각 장애의 진단준거는 장애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열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장애의 정의적 특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DSM-III-R(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과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성격장애의 진단분류 모델인 전형성적 범주모델에서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는 범주의 정의적 특징 또는 진단준거를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인가 이다(Livesley, 1987a, 1987b, 1991). DSM에서 성격장애 기술은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들의 채택 근거는 불명확하고, 이들에 대한 경험적인 지지는 부족하다(Livesley, Jackson, & Schroeder, 1992; Widiger & Frances, 1987).

성격장애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격장애 영역의 경계와 내용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Livesley는 타당한 절차를 통해 성격장애를 기술하는 진단준거의 개발이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구인타당화 접근에 의해 각 성격장애의 정의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Livesley, Jackson, & Schroeder, 1989; Livesley, Jackson, & Schroeder, 1992). 그는 특히 성격장애를 정의하는 하위 특질들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성격장애를 구성하는 상위 위계의 요인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예컨대, Hyler & Lyons, 1988; Kass, Skodol, Charles, Spitzer, & William, 1985; Schroeder, Wormworth, & Livesley, 1992; Widiger, Trull, Hurt, Clarkin, & Frances, 1987) 진단의 기술타당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위 특질의 탐색이 필요하다. Clark(1990), Costa와 McCrae(1990, 1992), Harkness(1992) 등은 성격장애 평가의 대부분 접근이 소수의 포괄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위계의 상위 영역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수의 차원을 포함하는 보다 구체적인 하위 영역의 검토가 성격병리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데에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최근에 황 순택 등은 성격장애의 하위 내용영역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DSM의 각 성격장애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는 성격 부적응 항목들을 수집하여 이들 각 항목이 각 성격장애에서 얼마나 전형적인 특징인지를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에게 평정케 한 후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각 성격장애의 진단준거 목록을 완성하였다(황순택, 1995; 황순택, 조연규, 오동열, 김창현, 양병환, 1997). 그러나 여기에서도 장애들 간에, 특히 같은 군집에 속하는 장애들 간에 공유하는 준거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진단간 준거공유 현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검토해볼 수 있겠으나(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황순택, 1995 참조) 그 원인이 무엇이건 임상장면에서 실제 사용하는 경우 변별진단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군집 내에서도 내용상 유사한 특징항목들이 동시에 높은 전형성 평정 점수를 얻은 경우가 적지 않아 불가피하게 준거 목록 내에서 내용의 중복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격장애를 구성하는 하위 특질차원의 탐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장애를 특징짓는 내용 또는 하위 특질이 규명되어야 진단준거를 확정하거나 내용타당화에 입각한 진단도구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병리에 기저하는 하위 특질들을 탐색해 봄으로써 성격장애의 내용영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정하고 또, 성격장애의 정의와 진단준거를 개발하거나 측정도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방법

참가자

교양 심리학을 수강하는 대학생들 중 자원한 138명의 학생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 중 남학생은 62명, 여학생은 76명이었다.

도 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카드는 황 순택(1995)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성격장애 자기보고 척도를 수정하여 제작한 것이다. 이 척도는 황 순택(1995)의 연구 I에서 사용된 전문가 평정용 성격장애 진단준거 후보문항들을 수정하여 만든 자기보고형 척도(황순택, 1995의 연구 II)이다. 이 자기보고형 척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성되었다. 먼저, 한 명의 임상심리전문가와 네 명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토론과 수정을 거쳐 성격적인 부적응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의 자기보고형 척도 초안을 만든 후, 각 문항이 원래 문항을 충실하게 반영하는지, 표현이 난해하거나 애매한지를 2명의 임상심리전문가와 3명의 심리학과 대학원생이 검토와 토의를 거쳐 2차 수정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 문항에 대해 7개의 보충문항을 추가하여 총 157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를 다시 임상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13명에게 처음의 평정목록 문항들 중 어느 것을 수정한 것인지 확인(matching)하게 하였다. 이 결과 합계 2041개의 문항(157문항×13명) 중 잘못 확인된 30개의 문항은 다시 3차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황순택, 1995, 황순택 등, 1997).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정된 항목들을 157장의 3×5 Cm 카드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절 차

무선적인 순서로 배열된 157장의 카드를 참가자에게 한 조씩 주고 “동일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사한 내용들”을 함께 묶는 과제(card sorting task)를 실시하였다. 본 과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대상을 사용하여 카드분류 과제를 연습시켰다. 동일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사한 내용끼리 카드를 묶는 본 과제에서 한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의 수는 제한하지 않았으며, 가능한 많은 그룹을 구성하도록 하여 유사하지 않은 내용들이 같은 그룹에 묶이지 않도록 하였다. 카드 한 장으로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 것도 허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주성분의 산출

본 자료의 분석을 위해 참가자 각각에 대해 157 × 157의 결합행렬표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에게서 3번과 4번 카드가 같은 그룹으로 묶이면 (3,4)와 (4,3)에 각각 1.0의 값을 부여하고 3번과 4번 카드가 같은 그룹으로 묶이지 않는 경우 0.0의 값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개 참가자의 157 × 157 행렬표는 각 좌표가 0.0이나 1.0의 값을 가지게 된다. 138명분의 행렬표의 각 대응되는 좌표 점수들을 합한 후 각 좌표값의 합을 참가자 수인 138로 나누어 최종적인 결합행렬표를 만들었다. 157항목에 내재해 있는 공통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이 행렬표를 사각 회전(oblimin rotation) 방식으로 주성분 분석을 하였다. 주성분 분석 결과 고유값이 1.0이상인 30개의 주성분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30개의 주성분으로 총 변량의 83%가 설명되었다. 157개의 항목 중 두 항목을 제외한 155개 항목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성분에서 .40 이상의 요인 부하값을 가졌으며, 이 중 43개 항목은 두 개의 성분에서, 9개 항목은 3개의 성분에서, 3개 항목은 4개의 성분에서 .40 이상의 요인 부하값을 얻었다.

산출된 성분들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개개 성분에 묶인 항목들을 2명의 임상심리 전문가와 2명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함께 검토하여 각 성분의 잠정적인 명칭을 정하였다. 같은 성분으로 묶인 30개의 문항군 리스트와 각 성분의 잠정적인 명칭들을 9 명의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에게 제시하여 각 문항군과 각 성분의 명칭을 연결짓게(matching) 하였다.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은 명칭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명칭을 결정하였다. 각 성분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염려/회피, 2. 지지와 인정의 욕구, 3. 사회적 무관심과 고립, 4. 분노와 충동성, 5. 반

사회성, 6. 의존성, 7. 감정과 대인관계의 불안정, 8. 피해의식, 9. 양심, 10. 정서성의 결여, 11. 낮은 자존감/열등감, 12. 자기중심적, 13. 지각과 사고의 일탈, 14. 불안정한 자기상, 15. 착취/공감결여, 16. 외모에 대한 관심, 17. 과장된 정서, 18. 합리화, 19. 인색함, 20. 권위에 대한 반감, 21. 조심성, 22. 과대화된 자기상, 23. 의심, 24. 긴장과 불쾌감, 25. 모욕감, 26. 소심함, 27. 복종성, 28. 책임의 결여, 29. 비유연성, 30. 권태감. 각 성분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성분의 기술 및 선행연구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 추출된 30개의 특질 주성분들을 성격장애의 하위 성분 추출에 관한 네 편의 선행 연구(Clark, 1990; Harkness, 1992; Livesley, Jackson, & Schroeder, 1989, 1992)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1. 사회적 염려/회피

이 성분은 다른 사람, 특히 친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경향이 주요 내용이다. 이 특질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는 한 관계를 꺼리고, 타인과의 접촉이 많은 활동을 회피하며, 비난이나 거절에 과민하고, 반감을 살까봐 반대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과묵하다. 또한, 정서는 부적절하고 위축되어 있다. 이 특질은 성격병리의 하위 특질에 관한 다른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어왔다. 가령, Harkness(1992)의 요인 8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불편해 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수줍어하거나 조용하거나 회피적임”,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의 요인 3 “사회적 염려”,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92)의 요인 15 “사회적 염려”, Clark(1990)의 요인 7 “부정적 정서”와 내용상 거의 동일하다.

2. 지지와 인정의 욕구

이 성분은 항상 주목받고 칭송 받고 싶어하며, 시
기심이 많고, 권력지향적인 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특질이 강한 사람은 자신은 특별한 대접을 받
을 가치가 있고, 특별한 사람만이 자신의 가치를 알
아줄 수 있다는 과대화된 자기상을 가지는 경향이 있

다. 이 성분에서 높은 부하를 보이는 항목들 중 많은
항목들이 성분 22 “자기애”에서도 높은 부하를 보이
고 있다. Harkness(1992)의 요인 17 “자신의 능력이
나 중요성, 독특성을 과대평가함”, 요인 20 “항상 주
목해주고 인정해주고 안심시켜주기를 원함”,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의 요인 10과 Lives-
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92)의 요인 14 “자

표 1. 주성분의 명칭과 주요 내용

성분 명	주요 내용
사회적 염려와 화피	낮선 사람에 대한 불편감과 두려움; 정서적 부적절과 위축; 과민성; 과묵함
지지와 인정의 욕구	비난이나 거절에 낙심; 시기심; 과대화된 자기자기; 권력지향적
사회적 무관심, 고립	친밀한 감정 표현 결여; 지속적인 대인관계 결여; 대인접촉 회피
분노와 충동성	낮은 좌절인내; 잦은 감정변화; 강렬하고 충동적이고 부적절한 분노표현
반사회성	비행 전력; 무모함, 부주의, 충동적; 성적 문란; 자해, 자살시도; 죄책감 결여
의존성	주도성 결여; 결정과 책임 회피; 버림받는데 대한 두려움
감정, 대인 불안정	감정 기록; 불안정한 자기상, 경멸하면서 불안정한 대인관계
피해의식	이용당하고 피해를 입고있다는 생각; 타인의 행동에서 모욕, 위협의 의미 지각
양심	양심적, 도덕적; 원리원칙 고집; 융통성 결여, 고지식; 우유부단
정서성의 결여	욕구와 감정의 결여; 냉담함; 흥미와 즐거움의 결여; 타인의 반응에 무관심
낮은 자존감/열등감	과묵함, 소심함, 걱정; 열등감; 낮은 자존감; 새로운 일, 책임 회피; 주장 결여
자기중심성	고집; 오만함; 기대나 충고에 대한 반감; 잦은 항의, 시비, 비난, 불평
지각과 사고의 일탈	육감, 착각등 특이한 지각경험; 기이한 혹은 신비적인 생각
불안정한 자기상	안정된 자기상의 결여; 일과성의 정신병적인 상태
차취/공감결여	이해, 공감 결여; 오만함; 타인의 권리 침해; 거짓말; 죄책감 결여
외모에 대한 관심	신체적 매력에 대한 관심; 화려한 외모와 행동
과장된 정서	과장된 행동이나 감정표현; 느낌과 인상 중심의 언어표현
합리화	타인 원망; 부정적인 행동의 외부귀인
인색함	금전적 인색함; 낡고 가치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함
권위에 대한 반감	권위에 대한 불신과 반감; 타인의 요청에 저항적; 충고에 분개함
조심성	계획성; 정리정돈; 안전성과 확실성 추구; 일을 완성하지 못함; 참여와 활동 제한
과대화된 자기상	유능성의 과대지각; 최고가 되는 상상; 특권의식; 고집; 관심과 칭송의 욕구
의심	불이익의 기대; 불신과 의심; 망상적 사고 경향
긴장과 불쾌감	스트레스 인내력 결여; 지속적 긴장; 빈번한 불쾌 경험
모욕감	주목 욕구; 취약한 자존감; 모욕감, 분노, 반격; 충고에 대한 거부감; 항의, 불평
소심함	위축된 정서; 자신감 결여; 걱정; 주장결여, 과묵함; 거절 두려움; 관계관념
복종성	유순함, 복종성; 예의바름; 주장 결여, 과묵함; 거절 두려움; 관계관념; 조심성
책임의 결여	책임 회피, 결여; 생활상의 불성실; 역할수행의 태만
비유연성	잦은 항의, 불평
권태감	인내 부족; 싫증, 권태감, 잦은 이직, 실업상태; 판단과 행동의 즉흥성, 충동성

기에", Clark(1990)의 요인 2 "과대화와 자기중심성 (grandiose egocentrism)", 요인 9 "의존성"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사회적 무관심과 고립

이 성분은 친밀한 관계가 없고 원하지도 않고 친밀한 감정이나 애정표현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 대인접촉이 많은 활동을 회피하고, 주로 혼자 하는 일만 택하는 경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Harkness(1992)의 요인 5 "가족을 제외하면 가까운 사람이 없음", 요인 25 "친밀한 개인적 또는 성적 관계에 관심이 없음",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의 요인 8 "친밀성 문제", 요인 12 "표현의 위축",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92)의 요인 3 "정서적 위축", 요인 8 "친밀성 문제", Clark(1990)의 요인 3 "정서적 냉담함", 요인 10 "사회적 고립"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분노와 충동성

이 성분은 분노표현이 강렬하고 충동적이고 부적절하며, 쉽게 불쾌감을 느끼고, 만족지연과 좌절내력이 낮아 쉽게 흥분하여 폭력적으로 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특히, 자존감이 위협받을 때 감정이 폭발하는 경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Harkness(1992)의 요인 6 "쉽게 분노하는, 공격적인, 신체적으로 난폭해지기 쉬운", 요인 24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기분의 변화가 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느낌이 예측할 수 없이 그리고 완전히 변함",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의 요인 1과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92)의 요인 13 "정서적 반응성", Clark(1990)의 요인 6 "분노/공격성", 요인 14 "충동성" 등과 내용상 유사하다.

5. 반사회성

이 성분은 사회적 관습과 규준의 무시, 빈번한 거

짓말, 무모하고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행동경향, 반성이나 후회의 결여, 문란한 성생활, 반복적인 자해 또는 자살시도, 아동청소년기의 비행행동 전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Harkness(1992)의 요인 1 "반복적인 불법적, 반사회적 행동", 요인 15 "거짓말을 반복함; 진실성이 없음", 요인 28 "후회나 수치심이 없음", Clark(1990)의 요인 4 "반사회성",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의 요인 11 "품행 문제" 등의 요인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6. 의존성

이 성분은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자신의 일에 대한 주도성이 결여되어 다른 사람의 조언을 필요로 하고, 중요한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혼자 남게되는 상황이나 관계의 단절을 견디지 못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Harkness(1992)의 요인 10 "외톨이가 되거나 버림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며, 혼자 있게되면 버림받은 느낌이 듦", 요인 16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함,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함", Clark(1990)의 요인 9 "의존성",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의 요인 6 "불안 애착"과 요인 7 "자신감 결여" 등과 동일한 특질이다.

7. 감정과 대인관계의 불안정

이 성분은 감정의 변화와 기복이 심하고, 쉽게 흥분하여 난폭하게 행동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가 강렬하면서도 불안정성이 심하고, 자기상 또한 불안정한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Harkness(1992)의 요인 24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기분의 변화가 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느낌이 예측할 수 없이 그리고 완전히 변함", Clark(1990)의 요인 22 "안정성 결여",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의 요인 1 "정서적 반응성" 등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arkness(1992)의 요인 39 "강한 자기감 (sense of self)이나 가치(values)가 결여되어 있음; 자

신, 목표, 관계 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belief)이 결여되어있음”을 포함하는 성분이다.

8. 피해의식

이 성분은 다른 사람들의 진실성을 의심하여 사람들로부터 이용당하거나 피해를 입고있다는 생각,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모욕이나 위협의 의미를 읽는 경향,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시기한다는 생각 등의 피해의식이 주된 내용이다. 심한 경우 관계관념, 기이한 외모와 행동 등 분열형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수반될 수도 있다. Harkness(1992)의 요인 36 “다른 사람에게 시기심과 경멸감을 느낌; 원한을 품음”, Clark(1990)의 요인 18 “과민성” 등의 요인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9. 양심

이 성분은 지나치게 양심적으로 도덕적이며, 융통성이 없이 원리원칙을 고집하고, 우유부단하여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 성분은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의 요인 4 “강박적 행동” 요인과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92)의 요인 4 “강박성”, Clark(1990)의 요인 12 “경직성” 등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Harkness(1992)에는 없는 성분이다.

10. 정서성의 결여

이 성분은 감정이 덤덤하거나 냉담하고, 일상생활에서 흥미를 느끼는 일이 없고,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성을 비롯하여 즐거움을 얻기 위한 활동이 결여되어 있으며, 타인들의 감정이나 타인들로부터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무관심한 면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 특질은 Harkness(1992)의 요인 2 “정서의 표현이 거의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인 표현을 거의 하지 않음”, 요인 25 “친밀한 개인적 관계 혹은 성적 관계에 흥미가 없음”, 요인 27 “기쁨

을 느끼거나 즐기기 어려움; 흥미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함; 좋아할 만한 또는 즐거울 수 있는 일을 즐기지 못함”, Clark(1990)의 요인 3 “정서적 냉담함과 요인” 요인 8 “쾌락 결여(anhedonia)” 등을 포함하는 특질이며,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92)의 요인 12 “위축된 정서”, 요인 8 “친밀성의 문제”와는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11. 낮은 자존감/열등감

이 성분은 자존감이 낮아 자신이 열등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걱정이 많고 새로운 일을 하거나 집단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며, 일의 책임을 맡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특질이 높은 사람은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고, 실수나 실언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묵한 면이 있다. Harkness(1992)에는 이에 대응하는 요인이 없으며, Clark(1990)의 요인 5 “자기비하”,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의 요인 7 “자신감 결여”가 이 성분과 유사하다.

12. 자기중심적

이 성분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잘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지각하고 해석하는 경향으로, 이 특질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일 처리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구하고, 고집이 세고, 항의와 불평, 시비가 많고, 태도와 행동이 오만해 보이기까지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에는 저항적이며, 유익한 충고에도 분개하는 경향이 있다. Harkness(1992)의 요인 13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이고, 관대하지 못함”과 동일하며, 요인 31 “다른 사람들로 부터의 충고나 도움에 대해 거절하거나 저항하거나 분개함”과 내용이 부분적으로 겹친다. 이러한 성향이 특별히 자신에게 현실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Clark(1990)의 요인 17

"자기중심적 착취"에 비해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13. 지각과 사고의 일탈

이 성분에는 착각을 비롯한 특이한 지각경험, 욕감, 기이하거나 신비적인 생각 등이 포함된다. Harkness(1992)의 요인 12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한, 환상적인, 또는 미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묘한 또는 특이한 신념과 경험을 가지고 있음", 요인 33 "외모나 태도가 기묘하고, 이상하거나 유별난 방식으로 행동함", Clark(1990)의 요인 11 "특이한 생각",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의 요인 13 "인지적 왜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불안정한 자기상

이 성분에 함께 묶인 항목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나 자신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신에 대한 생각이 자주 바뀐다", "생각이나 기분이나 행동이 심하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다(예를 들면, 자기자신이나 현실이 완전히 달라진 것같은 느낌)" 등으로, 주로 안정된 자기상의 결여를 반영한다. 이 특질이 강한 경우 상황에 따라 일과성의 정신병적 혼란을 보일 수도 있다. Harkness(1992)의 요인 39 "확고한 자기감(sense of self) 가치(values)가 결여되어 있음; 자신, 목표, 관계 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belief)이 결여되어 있음"과 동일한 내용이며,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의 요인 14 "정체의 혼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변덕이 심한(labile) 자기 개념"과도 일치하는 특질이다. Clark(1990)에서는 이와 유사한 성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15. 착취/공감결여

이 성분에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결

여되어 있고,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하고, 태도와 행동이 오만하고, 생각과 행동이 이기적이고, 쉽게 거짓말을 하고, 반성이나 후회,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고, 관습과 규준을 무시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부적응 문제가 포함되었다. 이 특질은 Harkness(1992)의 요인 13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관대하지 못함"과는 거의 동일하며, Harkness(1992)의 요인 1 "반복적으로 불법적, 반사회적 행위를 함"과 부분적으로 내용이 중복된다.

16. 외모에 대한 관심

이 성분은 신체적인 매력에 관심이 많고, 외모와 복장이 화려하고, 남들의 눈에 잘 띄이는 행동 등으로 반영되는 특질이다. 이 특질이 높은 사람은 과시적이고, 유혹적인 성질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Harkness(1992)과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내용상 Clark(1990)의 16 "과시성(exhibitionism)",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92)의 요인 13 "정서적 반응성" 요인과 관련이 있으나 이들 자료에서는 과장된, 그리고, 변덕이 심한 정서표현이 주된 내용인데 비해 본 자료에서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주로 외적으로 눈에 잘 띄이는 행동과 화려한 복식으로 반영되는 측면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7. 과장된 정서

이 성분은 지나치게 풍부한 감정이 특징이며, 과장된 행동이나 감정표현, 사실보다는 느낌이나 인상을 중심으로 한 언어표현 등으로 나타난다. Harkness(1992),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92) 등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분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Clark(1990)의 요인 16 "과시성(exhibitionism)"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18. 합리화

이 성분은 자신이 겪고있는 어려움, 부정적인 행동이나 결과 등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반영하는 특질이다. Clark(1990)의 요인 4 “반사회성”의 구성 요소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마땅한 비난을 받아들이기를 회피함”과 내용상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다른 연구에서는 단일한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19. 인색함

이 성분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쓸모가 없고 낡은 물건을 잘 버리지 않는 것, 돈이나 시간을 소비하는데 인색하여 다른 사람에게 잘 베풀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매우 검소하게 절제하는 생활태도 등으로 반영되는 특질이다. Clark(1990)의 요인 12 “자기중심적인 착취” 요인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을 뿐(“관대하지 못함”) Harkness(1992),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 등의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요인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착취’의 성질을 지닌다기보다는 ‘절제와 검약’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Clark(1990)의 자료에서는 이 내용이 행위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들과 함께 묶여 나왔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이득과 무관하게 행해지는 근검절약을 함축하는 내용들로만 묶여 나와 보다 단일한 성분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해석하기가 보다 용이하다.

20. 권위에 대한 반감

이 성분은 권위상에 대해 불신과 반감, 적개심을 형성하고 있고, 그들을 경멸하고 비난하는 경향으로, 이 특질이 높은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요청이나 유익한 충고에도 분개하고 저항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 특질에는 권위상에 대한 저항의 측면과

수동공격성의 측면이 함께 들어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전자의 특징들이 더 높은 요인부하를 보이고 있어 “권위에 대한 반감”으로 명명하였다. 이 특질은 Harkness(1992)의 요인 31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충고나 도움에 대해 거절하거나 저항하거나 분개함”과 유사하며, Clark(1990)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과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92)의 요인 2 “거절(rejection)”을 구성하는 내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21. 조심성

이 성분은 곤경에 빠지게 될까봐 새로운 혹은 위험이 따르는 활동을 하기를 꺼리고,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경향에 관여하는 특질이다. 이 특질이 강한 사람은 안전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사소한 일이라도 미리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고, 사소한 부분에 신경을 쓰거나 또는 완벽을 기하려다 결국 전체 일을 다 마무리짓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을 수 있다. 또, 일을 시작할 때나 일을 하는 도중에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어야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Harkness(1992)의 요인 9 “완벽주의적이고, 일을 질서있고 정확하게 하는데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일을 실제로 완성할 수 없을 정도임”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lark(1990)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의 요인 4 “강박적인 행동”을 구성하는 “질서”, “정확성” 등의 특징과 유사하다.

22. 과대화된 자기상

이 성분은 항상 주목받고 칭송받고 싶어하며, 자신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남들로부터 평가받는 정도보다 실제로는 더 유능하다고 믿고, 특별한 사람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으며, 최고의 권력, 미, 성공, 사랑 등을 상상하는 등 다소간 현실왜곡적인 과대화된 자기상이 특징이다. 또, 이 특질이 강한 사람

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 처리 방식과 결과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Harkness(1992)의 요인 17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 독특성을 과대평가 함", Clark(1990)의 요인 2 "과대적인 자기중심성(grandiose egocentrism)", 요인 10 "자기애",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92)의 요인 14 "자기애" 등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의심

이 성분은 이용당하거나 불이익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잘 얘기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 등으로 드러나는 의심이 특징인 특질이다. 이 특질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인이나 연인의 순결에 대해 곧잘 의심할 수 있다. Harkness(1992)의 요인 3 "합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의심하고 불신함", Clark(1990)의 요인 1 "의심성"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92)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성분이다.

24. 긴장과 불쾌감

이 성분은 항상 긴장되어 있고, 불쾌한 기분이 들 때가 많으며,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향 등으로 반영되는 특질이다. Harkness(1992)에는 없으며, Clark(1990)의 요인 7 "부정적 정서"를 구성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이 특질과 일치하며,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의 요인 1 "정서적 반응성"의 경우 정서적 불안과 긴장, 초조, 과민성 외에도 정서적 흥분과 분노, 정서적인 불안정성(lability), 반추경향, 우유부단함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본 요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25. 모욕감

이 성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자존심이 상

하거나 모욕감을 느끼고, 이 경우 화를 내거나 반격을 가하거나 보복의 기회를 노리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고를 받으면 불쾌한 기분이 들고 화가 먼저 나고, 빈번하게 시비를 따지는 등의 행동으로 반영되는 특질이다. 이 성분은 Harkness(1992)의 요인 7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비난이나 반대에 쉽게 마음이 상하거나 분노함"과 동일하다. 또, Harkness(1992)의 요인 31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충고나 도움에 대해 거절하거나 저항하거나 분개함", 요인 36 "다른 사람에게 시기심과 경멸감을 느낌; 원한을 품음"과 내용상 매우 유사하다. Clark(1990)의 요인 1 "의심성", 요인 22 "안정성 결여(instability)",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92)의 요인 2 "거절"의 일부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6. 소심함

이 성분은 자신이 없고 소심하고 걱정이 많고, 특히 실수를 하거나 웃음거리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까봐 염려하며, 이 때문에 기분이나 감정, 생각, 요구, 주장 등을 겉으로 표현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이 특징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성분 1 "사회적 염려"와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나 성분 1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대인 접촉을 회피하는 행동이 추가되어 있고, 본 "소심함"에는 사회적 염려와 함께 자기 표현의 무능과 절제를 반영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Harkness(1992)의 요인 8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불편해 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수줍어하거나 조용하거나 회피적임"과 공통되는 내용이 많은 특질이다. "과묵함" 측면은 Clark(1990)의 요인 10 "사회적 고립"에도 포함되어 있다.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의 요인 12와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92)의 요인 3인 "표현의 위축", 요인 8 "친밀성 문제"를 구성하는 특징들 중 일부인 "회피적 애착" 등의 성분과도 유사하다.

27. 복중성

이 성분은 비난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당한 요구나 자기주장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특질이 강하면 실수를 두려워하여 과묵하고 조심스러우며,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유순하고 순종적이고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좋게 보이기 위해 하기 싫은 일도 자청하는 면도 있다. Harkness(1992)의 요인 21 “인정받고 수용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반하여 순교자 역할을 맡고, 회생을 감내함”, Clark(1990)의 요인 5 “자기비하”와 유사하며,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과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92)의 요인 7 “자신감 결여”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28. 책임의 결여

이 성분은 무책임성과 불성실성 때문에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금전적인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 부모나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는 것, 직장이나 학교, 대인관계 장면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등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Harkness(1992)의 요인 15 “거짓말을 반복함, 진실성이 없음”과 Clark(1990)의 요인 4 “반사회성”을 구성하는 내용 중 하나이다.

29. 비유연성

이 성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곧잘 따진다”와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가려 따져야 될 일이 자주 생긴다”의 두 항목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상황에서 판단을 유보하지 못하는, 또는, 잘 못이라고 느끼는 일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면을 설명한다. 이 특질은 다른 연구에서는 하나의 독립적인 요인 또는 성분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본 연구의 성분 9 “양심”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

30. 권태감

이 성분은 일을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지만 인내성이 부족하고 쉽게 권태감을 느껴 중단해버리는 면을 기술하고 있다. 이 특질이 강한 사람은 일을 쉽게 시작은 하지만 마무리는 잘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이유로 직장 이동도 잦고, 사람을 쉽게 만나지만 쉽게 헤어지는 등 일관성과 안정성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특질은 Harkness(1992)의 요인 18 “미리 계획하지 못하며, 충동적임”, Clark(1990)의 요인 14 “충동성”,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의 요인 5 “자극추구” 등의 일부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논 의

구인의 정의를 개발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론적인 입장에 의거하여 연역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Millon의 성격이론(1981), IPC 모델(Wiggins, 1982)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어떤 이론이나 모델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와 수용이 필요하다. 성격 병리의 경우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이론이나 기본 성분에 대한 합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DSM에서는 여러 입장의 연구자와 임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찰 가능한 증상 또는 문제 행동으로 장애를 정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DSM에서 구성한 성격장애 진단준거는 비체계적인 전문가 표집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임의적인 것이며, 경험적인 지지는 부족하다(Widiger & Frances, 1987). 따라서 성격병리의 기본 성분들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구성 또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체 성격병리를 구성하는 기본 성분, 즉, 성격병리의 하위 특질들을 체계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성격장애의 진단준거를 구성하기 위한 황 순택(1995)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성격적인 부적응 문제 항목들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157개의 성격적 부적응 문제들을 138명의 대학생들에게 카드로 제시하여 동일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또는, 내용이 비슷한 카드끼리 분류(sorting)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를 주성분 분석하여 30개의 하위 특질 성분들을 추출해내었다.

본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한 방식은 경험적인 방식이 아닌 구성적인 방식이다. 즉, 반응자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과 그 정도)을 표시하게 하여 이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또는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끼리 묶도록 하여 이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성적인 방식이 성격 병리의 실제 현상을 반영할 수도 있으나 순전히 관찰자의 머리 속에만 있는 인식 구조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현실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구조가 실제 현실을 반영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정은 일찍이 Allport를 비롯한 특질이론적 접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전에 들어있는 모든 성격관련 용어들을 추출해 내어 자료축소 절차를 거쳐 성격특질을 확인하려 했던 Allport의 접근은 사전에 들어있는 성격어휘들이 그 언어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들을 폭넓게 담고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John, 1990).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러한 구성적 방법은 성격 병리의 하위 특질을 추출하기 위한 Clark(1990)의 연구와 Harkness(1992)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특히, Clark는 전문가 집단이 항목들을 분류하였는데 비해 Harkness의 연구에서는 일반인이 항목들을 분류하여 본 연구에서와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 1992)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기보고형 평정지를 실시한 자료를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및 Clark의 연구, Harkness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특질들은 주성분(요인)분석을 통해 성격병리의 하위특질을 연구한 Clark(1990), Harkness(1992),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 1992) 등의 연구에서 추출된 성격병리 요인들

과 대부분 일치하거나 유사하였으나 부분적으로만 일치하거나 내용이 유사하지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포괄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추출된 성분이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성분에 비해 내용의 범위가 보다 좁은 경우가 보다 많았다. 즉, 본 연구에서의 개개 성분들이 선행 연구들에서의 유사한 성분들의 일부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며, 융통성이 없이 원리원칙을 고집하고, 우유부단하여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면”을 내용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의 “양심”은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92)의 요인 4 “강박성”과 Clark(1990)의 요인 12 “경직성” 등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92)의 요인 4 “강박성”은 ‘질서’, ‘정확성’, ‘양심’, ‘이동(의 결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의 “양심” 성분을 포괄하고 있다. Clark(1990)의 요인 12 “경직성”은 ‘관습적이고 진지하고 형식적인; 일에 과도하게 몰두함; 완벽주의; 세부적인 면에 대한 집착,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꼼꼼하고 융통성이 없는; 유머감각의 결여; 객관적인 입장을 자부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요인 또한 본 연구에서의 “양심” 성분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 연구에서 산출된 요인(또는 성분)의 수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즉, 산출된 요인의 수가 적은 경우 그 내용이 보다 포괄적이고, 산출된 요인의 수가 보다 많은 경우 내용이 보다 협소해지는 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Livesley, Jackson, 그리고 Schroeder(1989, 1992)의 연구에서는 1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Clark(1990)의 연구에서는 2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들은 거의 대부분 본 연구에서 확인해낸 성분들에 비해 각 요인이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다양한 또는 보다 이질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Harkness(1992)의 연구에서 추출해낸 39개의 요인의 경우 각 요인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동질적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분들에 비해 요인 내의 이질성 또는 다양성이 크지 않았다.

DSM 개정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DSM-III), 그

리고, 보다 행동적인(DSM-III-R) 준거가 강조되었다 (Frances, 1980; Widiger, Frances, Pincus, Davis, & First, 1991; Widiger, Frances, Spitzer, & Williams, 1988). DSM-IV에서는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의거한 타당도 향상을 염두에 두고 개정되었으나 축 2 성격장애의 경우 DSM-III-R에 비해 형식과 구성상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진단준거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진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타당도를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 어떤 한 특질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될 수 있고, 또, 어떤 한 행동의 원천으로 가정되는 기저 특질은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DSM에서는 구체적인, 그리고, 행동에 초점을 맞춘 준거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준거들이 각 성격장애의 정의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내용의 중복이 많다. DSM-III나 DSM-III-R에 비해 DSM-IV에서는 이러한 면이 상당히 정리되기는 했으나 일부는 여전히 남아있다. 가령, 각 진단 내에서 유사한 내용들이 별개의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기도 하고(예컨대, DSM-IV의 편집성 성격장애 준거 1 “충분한 근거도 없이 타인들이 자신을 착취하고 해를 주거나 속인다고 의심한다”와 준거 2 “친구나 동료의 성실성이나 신용에 대해 부당한 의심에 집착되어 있다”나 분열성 성격장애 준거 1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도 즐기지도 않는다”와 준거 5 “직계가족 외에는 가까운 친구나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가 없다”는 사실상 거의 동일한 내용이어서 구분하기가 어렵다), 다른 진단들 간에 동일한 내용의 항목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가령, “직계가족 이외에는 가까운 친구나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가 없다”는 준거는 DSM-IV의 분열성 성격장애와 분열형 성격장애에 함께 들어있다). 특히, 황순택 등의 연구(황순택, 1995; 황순택, 조연규, 오동열, 김창현, 양병환, 1995, 1996, 1997)에서 군집 B에 속하는 네 성격장애간에 진단적인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점이 변별진단을 어렵게 하는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DSM 성격장애 진단에서 보이는 이러한 면은 진단적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에 관한 연구와 도구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성격장애를 규정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격병리를 구성하는 내용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황순택, 1995). 이와 관련하여 성격병리의 상위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성격병리 위계의 하위 요인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수행되었다. DSM의 성격장애 진단준거들은 구체적인 행동적 특징을 기술하고 있어, 동일한 장애의 진단준거들 중 내용상 유사한 특질(또는 요인)로 추정되는 여러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성격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한하다. 구체적인 수준의 행동들을 성격장애의 진단준거로 다 사용하는 것은 성격장애의 기술이 지나치게 장황해질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직접 성격을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성격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기 어렵다. DSM에 제시되어 있는 행동 특징은 기저하는 어떤 특질의 대표적인 행동일 뿐 기저 특질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필요충분적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의 정의는 일반적인 특질로 기술되어야 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행동을 포착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하위 특질로 개개 성격장애를 정의하고 이러한 특질들이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의 예를 일부 제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격병리의 하위 위계에 대한 규명은 성격장애를 정의하고 진단준거를 개발하는 데에 필요할 뿐 아니라 성격병리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성격장애 진단도구의 내용타당화 평가를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성격장애의 구조와 정상성격의 구조를 비교하거나 각 성격장애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각 성격장애 증상의 경험적 구조에 관한 연구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단일한 성격병리 목록으로 단일한 집단에서의 분류(sorting)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교차 타당화를 위해 새로운 목록을 구성하여 새로운 집단에서 수행한 분류 결과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성된 성격병리의 주요 성분들이 실제 경험적 자료에서도 관찰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황순택(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순택, 조연규, 오동열, 김창현, 양병환(1995). 전형성 평정을 이용한 DSM-III-R 성격장애 진단의 내용분석. *정신건강연구*, 14, 132-150.
- 황순택, 조연규, 오동열, 김창현, 양병환(1996). DSM-III-R 성격장애 진단의 내용타당도. *신경정신의학*, 35, 290-297.
- 황순택, 조연규, 오동열, 김창현, 양병환(1997). 성격장애 진단준거 목록의 효율성 비교. *정신건강연구*, 16, 194-21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rev.)*.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 Angus, L. E., & Marziali, E.(1988). A comparison of three measures for diagnosi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1453-1454.
- Blais, M. A., Hilsenroth, M. J., & Castlebury, F. D. (1997). Content validity of the DSM-IV borderline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criteria sets. *Comprehensive Psychiatry*, 38, 31-37.
- Cantor, N., Smith, Z. E., French, R. des., & Mezzich, J.(1980). Psychiatric diagnosis as prototype classific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 181-193.
- Costa, P. T., Jr., & McCrae, R. R.(1990). Personality disorder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4, 362-371.
- Costa, P. T., Jr., & McCrae, R. R.(1992).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its relevance to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6, 343-359.
- Chapin, K., Wightman, L., Lycaki, H., Josef, N., & Rosenbaum, G.(1987). Difference in reaction time between subjects with schizotypal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4, 948-950.
- Clark, L. A.(1990). Toward a consensual set of symptom clusters for assessment of personality disorders.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Vol 8*, 243-266.
- Clarkin, J. F., Widiger, T. A., Francis, A., Hurt, S. W., & Gilmore, M.(1983). Prototypic typology and the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263-275.
- Eysenck, H. Wakefield, J., & Friedman, A.(1983). Diagnosis and clinical assessment: The DSM-III.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4, 167-193.
- Frances, A, J.(1980). DSM-III personality disorder sector: A commentar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 1050-1054.
- Frances, A. J.(1982). Categorical and dimensional systems of personality diagnosis: A comparison. *Comprehensive Psychiatry*, 23, 506-526.
- Fyer, M. R., Frances, A. J., Sullivan, T., Hurt, S. W., & Clarkin, J.(1988). Comorbidit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5, 348-352.

- Gartner, A. F., Marcus, R. N., Halmi, K., & Loranger, A. W.(1989). DSM-III-R personality disorders in patients with eating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6, 1585-1591.
- Gunderson, J. G.(1992). Diagnostic controversies. *Review of Psychiatry*, 11, 9-24.
- Harkness, A. R.(1992). Fundamental topics in the personality disorders: candidate trait dimensions from lower regions of the hierarchy. *Psychological Assessment*, 4, 251-259.
- Horowitz, L. M., Write, J. C., Lowenstein, E., & Parad, H. W.(1981). The prototype as a construct in abnormal psychology: A method for driving prototyp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263-275.
- Hyer, S. E., & Lyons, M.(1988). Factor analysis of DSM-III personality disorder clusters: A replication. *Comprehensive Psychiatry*, 29, 304-308.
- John, O. P.(1990). The "Big Five" factor taxonomy: Dimensions of personality in the natural language and in the questionnaires. In L. Pervin (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pp.66-100). New York: Guilford.
- Kass, F., Skodol, A. E, Charles, E., Spitzer, R. L, & William, J. B. W.(1985). Scaled ratings of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 627-630.
- Links, P. S., Heslegrave, R., & vanReekun, R.(1998). Prospective follow-up stud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rognosis, prediction of outcome, and axis II comorbidity.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3, 265-270.
- Links, P. S., Mitton, M. J., & Steiner, M.(1993). Stabilit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8, 255-259.
- Livesley, W. J.(1987a).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in the selection of criteria to diagnose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 88-94.
- Livesley, W. J.(1987b).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delineation of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4, 772-777.
- Livesley, W. J.(1991). Classifying personality disorders: Ideal types, prototypes, or dimension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5, 52-59.
- Livesley, W. J. Jackson, D. N., & Schroeder, M. L. (1989). A study of factorial structure of personality 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3, 292-306.
- Livesley, W. J., Jackson, D. N, & Schroeder, M. L. (1992). Factor structure of traits delineating personality disorders in clinical and general population samp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32-440.
- Loranger, A. W., Susman, V., Oldham, J. M., & Russakoff, L. M.(1987). The Personality Disorder Examination: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 1-13.
- Meijer, M., Goedhart, A. W., & Treffers, P. D.(1998). The persistence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12, 13-22.
- Millon, T.(1981). *Disorder of personality: DSM-III Axis II*. Toronto: Wiley.
- Oldham, J. M., Skodol, A. E., Kellman, H. D., Hyler, S. E., Rosnick, L., & Davies, M.(1992). Diagnosis of DSM-III-R personality disorders by two structured interviews: Patterns of comorbid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 213-220.
- Schroeder, M. L., Wormworth, J. A., & Livesley, W. J.(1992). Dimensions of personality disorder and their relationships to the big five dimen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7-53.
- Shapiro, T.(1989). Psychoanalytic classification and

- empiricism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s a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187-194.
- Stangl, D., Pfohl, B., Zimmerman, M., Bowers, W., & Corenthal, R.(1985). A structured interview for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 591-596.
- Trull, T. J., Ueda, J. D., Conforti, K., & Doan, B. T.(1997).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2. Two-year outcom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07-314.
- Widiger, T. A., & Frances, A.(1985). The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Perspectives from psycholog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 615-623.
- Widiger, T. A., & Frances, A.(1987). Interviews and inventories for the measurement of personality disor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7, 49-75.
- Widiger, T. A., Frances, A. J., Pincus, H. A., Davis, W. W., & First, M. B.(1991). Toward an empirical classification for the DSM-IV.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280-288.
- Widiger, T. A., Frances, A. J., Spitzer, R. L., & Williams, J. B. W.(1988). The DSM-III-R personality disorders : An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786-795.
- Widiger, T. A., Trull, T. J., Hurt, S. W., Clarkin, J., & Frances, A.(1987). A multidimensional scaling of the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57-563.
- Wiggins, J. S.(1982). Circumplex models of interpersonal behavior in clinical psychology. In P. C. Kendall & J. N. Butcher(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clinical psychology*. New York: Wiley.

Lower Level Traits in the Hierarchy of Personality Pathologies

Hwang, Soontaeg

Dep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o describe personality pathologies, lower level traits in the hierarchy of personality pathologies are needed. There have been however, few studies to examine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ower level traits necessary to describe personality pathologies. 157 items of the Personality Disorder Rating scale(Hwang,1995) were sorted in terms of "content similarity" or "content co-occurrence" by 138 layman participants. The data were transformed to co-occurrence probability matrix. 30 components were of personality pathologies identified by means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the matrix, and compared with those of previous studies. The methodology,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